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관련 변인 연구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Lifestyle of Elderly People
Who have No Spouse and the Related Variables

승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
겸임교수 임창희

Dept. of Family Welfare Soong Eui Women's College
Adjunct Professor : L'm, Chang 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finding out how spare time activity,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and loneliness affect the satisfaction of life of elderly people who have no spouse.

To begin, according to the survey,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who have no spouse, male elderly people feel more loneliness, lower unification with their offspring, and do less activity in their spare time than female elderly people. The elderly people with a higher educational level, feel less loneliness and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ir offspring. When elderly people believe in a religion, they participate in positive activities in their spare time and have a higher satisfaction of life.

Secondly, the less the elderly people have for a monthly income, the more they feel a deep sense of isolation. However, if the elderly have a sufficient monthly income, they spend their spare time on positive activities and feel a higher sense of satisfaction in their lives. These results show that economic situa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elderly people to maintain good mental health and a good quality of life.

Thirdly, the loneliness of elderly people who have no spouse was influenced by whether the elderly people have children or not. If an elderly person loses their spouse through death, they can find themselves in a desperate situation and feeling

* 주저자, 교신저자 : 임창희(gssmi@freechal.com)

very isolated. Most elderly people who have no spouse want to live with their offspring and depend on their sons and daughters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However,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have lower satisfaction of life because of economic and psychological problems.

Therefore, the results shows that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ho have no spouse was influenced by living with their children and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m. The elderly people who have no spouse feel hopelessness and rely increasingly on their sons and daughters. The elderly people who don't have a sufficient monthly income not only feel more loneliness than other elderly people, but are also restricted in their spare time activities. It proves that the economic situation(monthly income) is also an important factor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hips.

Key Words : 무배우자(the elderly people who have no spouse), 생활만족도 (satisfaction of lifestyle), 고독감(loneliness), 여가활동(sparetime activity), 자녀와의 결속도 (the relationship(unification) with their offspring)

I. 서론

현대사회가 고도로 첨단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을 감소 등으로 인해 노년인구가 증가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맞이하게 되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간의 노화는 우리 삶의 필연적인 과정이며, 노인문제는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에는 프랑스(1864년→1979년)가 115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미국은(1942년→ 2013년) 71년, 일본은(1970년→ 1994년)24년, 우리나라는(2000년→ 2019년)19년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고령사회로 진입되는 속도이다(매경ECONOMY, 제1153호).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부

족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에 관한 연구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은 빈곤사회에서 청장년층을 보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IMF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기퇴직, 명예퇴직의 이름으로 서둘러 사회를 은퇴한 노인들은 사회·경제적 역할상실과 지위하락으로 사회적 유대감 상실 및 사회·심리적 부적응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과 소외감을 가져다주게 되어 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정을 심각한 이슈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일자리의 역할상실에서 오는 수입의 절감으로 인한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심리적인 의존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에는 노인 자살자가 전체 자살자의 19.7%를 차지했으나, 2003년에는 28%에 달해 자살하는 사람 중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61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

인소의, 자살과 같은 문제가 보다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연금 등 노후복지제도가 미비한데다 정부의 노인복지예산도 터무니없이 부족해 노인들이 사회적 관심부족이나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문화일보, 2004).

현 세대의 노인들은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온 세대이기에 여가의 활용과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길어진 노년기의 여가활용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문제의 발생원인을 사회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으려는 노력 외에 그 주체인 노인으로부터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인을 규명해 보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노인의 생활만족은 문화적, 환경적 배경을 고려한 조건들의 광범위한 범주 안에서 만족스럽게 개발될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하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적, 가정적, 심리적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변화가 전통적인 가족관과 가치관의 변모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과거의 가족형태는 부모를 모시고 부양하는 것에 당연시 되어왔던 것이 사회변화로 인하여 동거유형은 노인부부의 단독동거, 독거의 동거유형이 늘어나게 되었다. 노인의 자녀와의 동·별거는 교육, 경제력 등의 개인적 특성 변인에 따라 달라진다. 즉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의 측면에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노인들은 세대간 별거를 선호하고 노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결혼상태에서 유배자일 경우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였고(이가옥 등, 1994), Eu(1992)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인 거주형태를 취한다고

하였다(유성호, 1996, 재인용).

결혼상태에 따라 노인들은 사별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가옥 등, 1994). 의존성이 증가하는 노년기에 특히 배우자에 대한 상호의존성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배우자의 사별은 비록 노년기에 경험해야 하는 규범적인 사건일지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며 심각한 절망과 고독을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에서 유배우자 노인들이 무배우자 노인들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여(홍숙자, 1992)연구가 이루어졌다. 앞으로의 후기고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배우자 없이 길어진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인에게도 초점을 맞추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동거유형과 배우자유무와 함께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는 많은 연구들에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접촉, 경제적, 신체적 상호원조 등의 객관적 상호작용이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정혜, 1992), 가치관 일치나 애정적 결속 등의 주관적 결속이 객관적 결속보다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더 중요하다고 했고(신효식, 1993), 노인이 기혼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김종숙, 1987).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노인의 주관적 복지감과 관계가 적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복지가 성인자녀와의 유대나 도움에 상당히 달려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심리적인 고독감과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이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봄으로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길어진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무배우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후속연구들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이란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Neugarten (1961)에 의하면 성공적인 노화의 귀결로서 얻어지는 심리적인 안정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Kalish(1975)는 생활만족도를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적응하여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노년기 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목표로 생활만족도의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Havighurst · Neugarten · Tobin(1968)은 노인의 삶의 만족은 획일적인 노인의 조건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 자신의 주어진 특성과 그 물리적·사회적 환경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윤진(1982)은 노인들의 심리적 적응, 정신건강의 수준, 심리적 행복과 복지상태 등 ‘노년기 삶의 질’ 연구를 위해 MUNSH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형태의 생활만족도 척도를

국내 최초로 제작했다(정혜정 외, 2000).

이효재 (1979)등이 생활 만족도 개념을 정의한 이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 만족도 개념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영상을 갖고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이형하, 2000).

홍순혜(1984)는 노인 생활만족도를 노인이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노인의 자신의 과거,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후 최성재(1986)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는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한국형 생활만족도 척도를 개발했다.

생활만족도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생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한국노년학, 2000).

이상과 같이 생활만족도의 개념에 관한 논의 및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에게 행복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인 안녕감, 만족은 사회적, 철학적, 심리적 측면에서 각기 표현을 달리했을 뿐 같은 개념이며,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생활, 그에 대한 만족 또는 행복에 대한 개인자신의 평가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의 우세성과 생활 중에 경험하는 신체, 정신, 사회,

경제측면에 대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실상 인간은 자신의 인생 주기 중 어느 한 시기 즉,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에만 높은 '삶의 질' 수준을 향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결국 노년기에 이르러 지난 일생을 회고해 볼 때,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만이 그의 인생은 성공적일 수 있고 만족한 일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의 개념을 자신의 삶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고 과거를 비롯하여 현재에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만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고찰

노인이 산업사회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노년기를 만족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노인의 생활만족이라는 개념이 1961년 Neugarten, Havinghurst 및 Tobin에 의해 일반화 되면서부터 생활만족도에 대한 검증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그것은 노년학 연구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최성재, 1986).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체 및 정신건강 수준, 경제활동 및 경제수준, 여가활용,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요인이 노년기의 삶의 질 혹은 생활만족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으로 성, 연령, 건강, 교육수준, 직업이나 월소득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이철우 외, 1996; 장상희, 1983; Gurin et al, 1960; Liang, 1982; Okun & George, 1984), 심리학적으로는 노인의 성격이나 정서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길, 1994; 정인숙, 2000; Diener & Diener, 1995; Eid & Diener, 1998).

Botner와 Hultisch(1970)는 인구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는데 인구학적 요인보다 심리학적 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Kalish(1975)는 경제적 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Cutler(1973) 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종교, 사회모임, 결혼, 친구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노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우복(1993)의 연구에서는 사회교육 참여, 건강상태, 사회단체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보고하였으며, 김종숙(1987)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 사회적 지위, 자녀유대관계, 사회활동 등을 들고 있다.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수준, 신앙심은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나이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성(性)이나 나이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다(김태현, 1986; Ling, 1982; Palmore and Kivett, 1979).

김수옥, 박영주(2000)의 최근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직업, 가족형태, 교육정도, 종교가 삶의 질과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이 없는 것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홀로사는 것 보다는 동거인이 있는 노인이, 그리고 종교를 가진 노인이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순혜(1984)의 연구에서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과 자주 만나 활동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철진(2000)의 연구에서도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활동 참여도, 건강상태, 재산상속 완료 여부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수연(1987)은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크다고 하였으며, 서미경(1990)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부양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한편 고승덕(1996)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삶의 질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들로서,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교육정도, 가족형태, 육체적 건강, 생활활력, 자부심, 자아존중감, 실패감, 열등감, 여가활동 여부, 직업유무 등을 보고하고 있다.

4. 관련변인 고찰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뿐 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노인 에 대한 관심, 가치, 태도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중숙, 1987; 손화희, 1998; 이인정, 1999 ; 조항숙·조병은, 2000). 즉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의 생활특성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인 고독감, 가족관계에서 자녀와의 결속도, 활동적인 측면에서의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인구학적변인

(1) 성별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과 관련된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일관

성 있는 연구가 나타나 있지 않다. 예를들면, 성별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김태현, 1986; 김중숙, 1987)가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은 노년기에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와 자녀들이 분가한 후에 공허상태, 즉 빈 등우리(the empty nest) 현상을 통해서 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받게 되며, 남성은 퇴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김중숙, 1986).

반면,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김명자, 1982 ; 김춘택, 1997; 김철진, 2000)도 있다. 여기서 여성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은 성 역할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활동 이론의 측면에서 생활만족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2) 연령

노인의 연령별 생활만족도 수준의 차이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사회적, 가정적으로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최외선, 1989)와 연령의 증가는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김춘택, 1987)도 있다. 이 연구는 연령이 직접적으로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 적응과 관련된다고 보거나(김수연, 1987), 연령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Creecy, 1985).

(3) 동거유형

노인들의 동거유형과 생활만족간의 관계의

연구들에는 문화적 규범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양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살면 오히려 노부모의 생활만족이 낮아지고(Aquilino & supple, 1991),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면 노인의 생활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lenn & McLanahan, 1981). 한국의 경우 거주형태와 생활만족간의 검증한 결과 다양한 결과를 내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유영숙, 1986; 장인협, 최성재, 1993) 연구결과와 자녀와의 동거가 생활만족을 포함한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권중돈, 조주연, 2000)와 반면에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생활만족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김종숙, 1987; 홍숙자, 1992)결과도 있다.

김태현·서승희(1987)의 연구결과에서는 노인부부단독 세대의 경우에 다른 동거형태들보다도 생활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이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근거리에서 살면서 정신적인 부양만을 원하고 있으며, 같은 주택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노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원영희(1995)의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동거나 별거형태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4) 교육수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중요한 사회적 교환자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이성록 2001, 재인용), 교육수준이 높으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따라서 노후에 따른 불안감도 줄어들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김애련, 2001; 권중돈 외, 2000; 김춘택, 1997).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유있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김명자, 1982 ; 김재인, 1987; 이우복, 1993)들도 있다. 반면에 서병숙(1998)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을 많이 받은 노인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cLelland(1982)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으면 생활수준도 높아져서 자신의 실제수준에 대하여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은 생활만족도와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5) 종교

종교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이 종교가 없는 노인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더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김미숙·박민정, 2000; 김태현·김수정, 1996; 이우복, 1993)가 보고되었다.

반면에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과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종숙, 1987)도 제시되었다.

종교활동은 심리적 기능으로 죽음에 잘 대면하도록 도와주고, 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막아주고, 집단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종교활동이 활발한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6) 월소득

노년기에 있어서의 경제적 안정은 노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 뿐 아니라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까지 하므로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고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노인의 경제상태가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생활만족도에 중요

한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김기태·박봉길, 2000; 김종숙, 1987; 홍숙자, 1992)와 노인들은 실제 경제상태보다 노년기의 소득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소득의 절대적 수준보다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상태의 만족여부가 노후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박경란, 1988; 이영자, 1999)가 있다.

2) 고독감

고독감 "Loneliness"의 개념이 국내연구에서는 고독감·외로움·소외감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고독감은 많은 사람들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Fromm-Reichmann (1959)은 앞으로 대인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라 하였으며, Peplau & Perlman (1973)은 인간의 사회적 대인관계 조절이 질적·양적으로 불충분할 때 발생하는 불쾌한 경험이라고 하였다(배진희, 2002, 재인용).

Holme(1992)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령과 주관적인 건강상태에서 고독감의 연관성을 보였고,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친구 유무, 인지 기능,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고독감의 예측인자로 확인되었다. 김미옥(1986)은 노인의 고독감과 신체적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 노인의 고독감 정도와 신체적 노화정도는 유사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자녀와의 결속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들(김종숙, 1986; 한임섭, 1987)과 자녀와의 결속관계가 좋을 경우 노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낮아진다는 연구(최정혜, 1992; 이윤정, 1994)가 있으며, 가족 결속도가 높을수록(김수연, 1987) 자녀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노인일수

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부양체계가 거의 없이 노후를 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유대관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노인과 성인자녀의 주관적 유대관계가 원만할수록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만족스러운 정서적 교류도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권중돈, 조주연, 2000).

4) 노인의 여가활동

Ward & Sherman(1984)은 노인의 사회모임 참여나 활동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며, 특히 자신의 은퇴와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을 심리적으로 보상해주며 고독감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였다(이선미, 1991재인용).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의 여가활동 추가와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Ward & Sherman(1984)은 노인의 교제나 사회활동이 자신의 은퇴와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심리적으로 보상해주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정우·이윤미(1997)는 노인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의 습득이 요구되며, 사회화를 통하여 지식과 기술이 익숙해졌을 때 노년기에 보다 유용하고 재미있으며 효과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노인의 여가는 노령기 생활을 얼마나 만족스럽고 건설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노인 자신의 사기와 자아상을 갖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 무배우자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성별, 연령, 결혼관계, 교육수준, 동거유형, 종교유무, 월소득 등 7개 변인의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고독감

노인의 고독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현진(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하였다. 인간내적 심리적요인과 대인적 관계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고독감 척도는 3점 Likert로 신뢰도는 ($\alpha = .90$)으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의미한다.

3)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결속을 측정하기 위해 Bengtson 과 Cutler(1976)가 분류한 자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결속도(Objective Solidarity)로 레크레이션, 대화, 중요한 일에 대한 논의,

도움을 주고받는 일, 가족행사가 포함된다. 둘째, 주관적 결속도(Subjective Solidarity)로 이해, 신뢰, 공정, 존중, 애정이 포함된다. 셋째, 합의적 결속도(Consensual Solidarity)로 전반적인 가치 지향에서의 일치가 포함된다.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9$)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자녀와의 결속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조사대상자의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요인분석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는 총 20개의 변수를 요인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이들로부터 유형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항목들은 Varimax 방식에 의해 회전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1>에서와 같이 ‘요인 1’의 문항에는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정도와 대화, 친밀감 등으로 ‘애정적 결속’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4.33이고 변량은 21.65%를 설명하고 있다.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1요인의 신뢰도는 ($\alpha = .88$)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결속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 2’의 문항에는 부모와 자녀간에 일어나는 서비스의 교환으로서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도와주는 것으로 ‘기능적 결속’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2.75이고, 변량은 14.76%이다.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2요인 신뢰도는 ($\alpha = .75$)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 결속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 3’의 문항에는 가족주의에 대한 규범을 포함하여 자식으로서의 심리적, 행동적 의무감과 책임감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범적 결속’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2.70이고, 변량은 13.50%이다.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3요인 신뢰도는 ($\alpha = .56$)으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규범적 결속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 4’의 문항에는 가치관 신념 등을 나

(표 1)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요인 구성변인

요인 구성변인	요인 부하량	고유값	변량 (%)	누적 변량 (%)
요인 1 : 애정적 결속				
자녀들은 외식이나 외출할 때 나를 함께 데리고 간다	.62	4.33	21.65	21.65
자녀들과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눈다	.67			
자녀들은 집안 일이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75			
자녀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더라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 와줄 능력이 없다	.67			
자녀에게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못한다	.79			
자녀부부나 손·자녀간에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중재를 부탁한다	.75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들로부터 거리감이 느껴진다	.55			
요인 2 : 기능적 결속				
모든 자녀들은 나의 생일을 기억하고 찾아온다	.71	2.75	13.76	35.41
점차 늙어감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마다 자녀들은 나를 열심히 도와준다	.68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자랐고 자식들이 자랑스럽다	.69			
요즘 자녀들의 행동이 못마땅하게 느껴진다	.40			
나의 자식들은 부모인 나에게 감사해한다	.50			
요인 3 : 규범적 결속				
자녀들이 여행을 갈 때면 같이 안 가게된다	.70	2.70	13.50	48.92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점차 식어가는 것 같다	.42			
자녀들이란 부모와는 달라서 어려운 때에는 부모생각을 덜 하기 마련인데 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80			
자녀들은 예전에 비해 나에게 소홀하다	.67			
자녀들은 내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들만을 위 해 줄 것이 라 믿는다	-.47			
요인 4 : 가치관일치의 결속				
자녀들은 내가 그들을 편애한다고 불평한다	.68	1.75	8.751	57.67
세대차이 때문에 자식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56			
나와 자녀들은 생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60			

타내는 것으로 ‘가치관 결속도’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1.75이고, 변량은 8.751%이다.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4요인 신뢰도는 ($\alpha = .49$)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치관 결속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 여가활동

여가활동에서는 먼저 이선미(1992), 진봉국

(1993), 송정선(1996) 등의 연구를 토대로 여가활동종류를 34문항으로 선정하였으며, 여가활동의 성격이 비슷한 문항을 다시 6가지 여가활동으로 유형화하였다. 즉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여가활동은 자기개발 여가활동(8 문항) 가족중심 여가활동(6문항) 종교 및 사회 참여 여가활동 (2문항) 사교오락 여가활동(10 문항) 소일 여가활동(3문항) 스포츠 및 건강

여가활동(5문항)으로 분류하였다.

각 문항마다 '전혀 안함' 1점에서 '매일한다' 5점까지 주어 측정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할 때는 유형화 작업을 통하여 분류된 6가지 여가활동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각각의 여가활동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합산한 값으로 하였다.

6) 생활만족도

본 연구에 사용된 생활만족도 척도는 Havighurst와 동료들에 의하여 개발된 LSI -A (Life Satisfaction Index -A)를 사용하였다 (Bernice I. Neugarten, Robert R. Havighurst, and Sheldon S. Tobin, 1961). LSI- A는 5개 구성요소를 가진 18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LSI- A의 구성내용은 첫째, 현재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열성 또는 자아투입, 둘째,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게 느끼는 통합력, 셋째, 인생에서 바라던 목적과 성취한 목적간의 일치감, 넷째, 긍정적인 자아관, 다섯째, 행복하고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이다(Robert J. Havighurst, 1963). LSI -A는 3점 리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과거 생활만족도는 4문항($\alpha = .72$), 현재생활만족 7문항($\alpha = .90$), 미래생활만족도 4문항($\alpha = .80$), 전체 생활만족도 18문항($\alpha = .89$)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조사대상자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무배우자 남녀 노인을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2004년 9월 2일부터 9월 9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

후 일부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 간에 걸쳐 노인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면접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서초구에 위치한 노인대학과 관악구의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들이 주로 많이 소일하는 파고다공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된 것은 71부였다.

자료처리는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계수(Cronbach' 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VIF지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무배우자 노인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무배우자 노인의 성별, 동거형태, 교육수준, 종교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은 <표 3>과 같다.

무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고독감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고독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 남자노인은 가족관계, 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이 여자노인에 비해 저조한 활동을 함으로서 고독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자

〈표 3〉 무배우자 노인의 성별, 동거형태, 교육수준, 종교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변인	무배우자		t값	무배우자		t값	무배우자		t값	무배우자		t값		
	여자 n=55	남자 n=16		독거 n=27	동거 n=44		고등 학교 이하 n=45	고등 학교 이상 n=26		종교 유 n=52	종교 무 n=19			
고독감	M	2.17	2.64	2.06	-3.070*	2.64	2.06	4.192	2.45	1.99	2.887	2.14	2.67	-3.809
	S.D	.70	.46	**	.45	.70	***	.61	.70	***	.70	.42	***	
성인 자녀 와의 결속도	M	1.55	1.06	3.982	1.15	1.62	-2.930	1.28	1.72	-2.569	1.57	1.07	3.867	
	S.D	.78	.26	***	.59	.75	***	.65	.76	**	.78	.30	***	
기능적 결속도	M	2.31	1.81	2.757	2.02	2.30	-1.722	2.06	2.43	-2.311	2.34	1.81	3.152	
	S.D	.65	.60	***	.70	.63	*	.69	.57	**	.63	.63	***	
규범적 결속도	M	1.84	1.58	1.852	1.54	1.93	-3.173	1.63	2.01	-2.655	1.88	1.51	3.196	
	S.D	.55	.46	*	.45	.54	***	.47	.59	**	.56	.36	***	
가치관 결속도	M	2.04	1.89	.966	2.00	2.02	-.166	1.86	2.26	-2.920	2.10	1.77	2.754	
	S.D	.58	.41		.50	.59		.47	.60	***	.58	.38	***	
자기 개발	M	1.63	1.21	3.043	1.48	1.57	-.692	1.45	1.68	-1.595	1.61	1.34	1.657	
	S.D	.60	.43	***	.50	.65		.58	.60		.60	.55		
가족 중심	M	2.37	1.13	5.998	1.51	2.44	-3.386	1.85	2.50	-1.921	2.37	1.33	4.270	
	S.D	1.44	.26	***	.72	1.56	**	.99	1.82	*	1.48	.56	***	
종교 및 사회	M	2.20	1.12	6.722	1.68	2.12	-1.824	1.86	2.11	-1.007	2.25	1.15	6.682	
	S.D	1.00	.34	***	.86	1.05	*	.99	1.01		1.00	.37	***	
사교 오락	M	1.73	1.53	2.042	1.58	1.75	-1.626	1.68	1.70	-.169	1.74	1.55	1.639	
	S.D	.45	.32	**	.41	.44		.40	.49		.43	.41		
소일	M	3.41	4.10	-2.614*	4.01	3.30	3.037	3.58	3.55	-.142	3.39	4.05	-2.649	
	S.D	.91	.94	**	1.03	.81	***	.98	.93		.91	.95	***	
건강	M	1.84	1.27	3.414	1.70	1.72	-.098	1.62	1.86	-1.251	1.85	1.33	3.071	
	S.D	.81	.50	***	.80	.78		.75	.83		.82	.53	***	
과거 생활 만족	M	1.57	1.29	2.044	1.21	1.69	-4.176	1.36	1.75	-2.899	1.58	1.30	2.207	
	S.D	.60	.43	**	.35	.61	***	.53	.57	***	.61	.42	**	
현재 생활 만족	M	1.86	1.57	1.456	1.54	1.95	-2.550	1.64	2.06	-2.478	1.89	1.54	1.808	
	S.D	.71	.68		.59	.74	***	.67	.71	**	.70	.69	*	
미래 생활 만족	M	1.50	1.46	.230	1.27	1.63	-2.476	1.28	1.86	-3.824	1.54	1.38	.982	
	S.D	.61	.63		.51	.63	***	.45	.68	***	.61	.59		
전체 생활 만족	M	1.70	1.48	1.315	1.40	1.81	-3.257	1.49	1.93	-3.173	1.73	1.45	1.762	
	S.D	.58	.58		.43	.61	***	.52	.59	***	.58	.55	*	

*p< 0.10, **p< 0.05, ***p< 0.01

(표 4) 무배우자 노인의 연령, 월소득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변인		무배우자			F값	무배우자			F값	
		60대 (n=16)	70대 (n=41)	80대 (n=14)		50만원 이하 (n=46)	51-200만원 (n=18)	201만원이상 (n=7)		
고독감	고독감	M	2.09	2.28	2.50	1.395	2.46	2.11	1.51	7.949 ***
		S.D	.72	.71	.48		.61	.67	.52	
		D					B	B	A	
성인 자녀 와의 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M	1.76	1.44	1.08	3.571 ***	1.19	1.76	2.26	11.543 ***
		S.D	.94	.67	.39		.57	.78	.63	
		D	B	AB	A		A	B	C	
	가능적 결속도	M	2.41	2.20	1.94	1.868	2.09	2.37	2.48	1.905
		S.D	.69	.65	.67		.67	.66	.56	
		D	B	AB	A					
	규범적 결속도	M	1.95	1.79	1.58	1.702	1.69	1.95	1.97	2.025
		S.D	.61	.55	.36		.53	.52	.60	
		D								
가치관 결속도	M	2.18	1.97	1.92	1.043	1.86	2.22	2.42	5.348 ***	
	S.D	.71	.51	.43		.47	.59	.62		
	D					A	AB	B		
여가 활동	자기개발	M	1.78	1.49	1.40	1.849	1.30	1.84	2.30	16.665 ***
		S.D	.70	.55	.55		.38	.66	.63	
		D								
	가족중심	M	2.47	1.94	2.08	.853	1.73	2.72	2.83	4.921 ***
		S.D	1.15	.95	2.37		.89	2.08	1.01	
		D								
	종교 및 사회	M	2.06	1.91	1.96	.122	1.73	2.19	2.78	4.364 **
		S.D	1.12	.92	1.13		.90	1.05	1.03	
		D								
	사교오락	M	1.95	1.62	1.60	3.933 ***	1.57	1.83	2.10	6.775 ***
		S.D	.44	.41	.39		.33	.51	.54	
		D	B	A	A					
	소일	M	3.68	3.56	3.47	.183	3.68	3.40	3.28	.867
		S.D	1.09	.91	1.00		.88	1.13	1.00	
		D								
	건강	M	2.13	1.68	1.31	4.523 **	1.45	2.11	2.40	9.036 ***
		S.D	.74	.80	.57		.67	.74	.87	
		D	B	AB	A					
생활 만족도	과거 생활만족	M	1.53	1.49	1.53	.039	1.38	1.65	2.00	4.652 **
		S.D	.63	.58	.52		.50	.69	.38	
		D					A	AB	B	
	현재 생활만족	M	2.05	1.72	1.73	1.324	1.59	2.09	2.38	6.780 ***
		S.D	.74	.72	.60		.67	.66	.59	
		D					A	AB	B	
	미래 생활만족	M	1.76	1.44	1.35	2.106 **	1.29	1.72	2.25	11.547 ***
		S.D	.64	.59	.56		.46	.68	.59	
		D					A	B	C	
	전체 생활만족	M	1.83	1.60	1.59	.974	1.47	1.89	2.23	8.559 ***
		S.D	.56	.61	.53		.52	.56	.51	
		D					A	B	B	

*p< 0.10, **p< 0.05, ***p<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더 잘 이해하고, 자녀와의 생각과 가치관이 갈등이 적을 것으로 결속도가 높게 나타났고, 여가활동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중심의 여가활동을 더 활발하게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더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 노인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종교생활을 안 하는 노인보다 고독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종교생활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안락으로 고독감을 지각하는 정도가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종교활동을 하는 무배우자 노인은 대인적 심리적인 관계가 형성함으로써 가정에서 또한 자녀와의 결속도를 높게 나타냈으며, 여가활동에서도 종교생활을 안 하는 노인보다 종교활동 외의 사회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교유무에 따른 (과거, 현재, 전체) 생활만족도에서는 종교생활을 하는 무배우자 노인에게 종교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복지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더 바람직한 삶을 영위한다고 하는 연구결과(김미숙, 박미정, 2000)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표 4>는 무배우자 노인의 연령, 월소득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이다.

무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는 60대에 가까울수록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교오락, 건강)여가활동에서도 60대에 가까울수록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어 70대 이상의 고령노인보다 60대 노인이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연구결과와(진영아,1995) 일치된 결과를 보였

다. 이는 사교오락과 건강은 활동적인 여가이기 때문에 60대에 가까운 젊은 노인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생활만족도에서는 60대에 가까운 노인일수록 미래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노인들은 고령이 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떨어진다고 한 연구결과(김태현 외, 1999)와 일치된 결과를 보인다.

무배우자 노인의 소득에 따른 고독감 차이를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고독감이 커지는 것으로 노인에게 소득수준이 낮으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활동의 폭이 좁아지게 되며, 심리적인 고독감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노인의 경제적 능력은 자녀와의 (애정적, 가치관)결속도를 높일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건강)여가활동에서도 월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의 금전적인 문제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보가 폭넓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에서 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한시적인 생활사건이라기 보다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만성적인 생활곤경을 설명해주는 변인이며,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정혜정 외, 2000)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어, 소득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된다.

3. 배우자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중속변수는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전체생활만족도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4가지 중 2요인, 여가활동참여도 6영역 중 3영역만 독립변수로 하였다. 독립변수 선정에 있어서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4요인(애정적 결속도, 기능적 결속도, 규범적 결속도, 가치관 결속도)을 함께 넣는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4개 요인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규범적 결속도, 가치관 결속도만을 회귀 모형의 독립변수로 넣었다. 또한 여가활동의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의 6개의 여가활동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가활동 6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오락 여가활동, 소일 여

가활동, 건강 여가활동 3영역만 회귀모형 독립변수로 넣었다.

<표 5>은 무배우자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동거유형, 종교유무, 소득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규범적 결속도, 가치관 결속도, 사교오락 여가활동, 소일 여가활동, 건강 여가활동을 제 변인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과거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70대, 80대, 고독감, 가치관 결속도,

<표 5>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 영향력

변인	과거생활만족		현재생활만족		미래 생활만족		전체생활만족		
	B	β	B	β	B	β	B	β	
성별@(여자=1)	.176	.128	2.414	.014	-.144	-.099	1.871	.013	
연령2@(70대)	.218	.187*	-3.0	-.021	-.187	-.151	3.310	.028	
연령3@(80대)	.402	.278***	.178	.100	-9.7	-.063	.189	.129	
교육1@ (중학교 이하)	-9.7	-.081	-7.1	-.005	-.188	-.148*	-8.5	-.070	
동거 2 (독거)@	-.328	-.277	-5.4	-.037	-.271	-.216**	-.190	-.158**	
종교@	.275	.212	.180	.112	.191	.139	.207	.157*	
소득1@ (50만원 이하)	-7.6	-.063	-.188	-.126	-7.6	-.060	-.129	-.106	
소득3@ (201만원이상)	-.202	-.105	-.278	-.117	.179	.171	-.184	-.094	
고독감	-.420	-.496***	-.802	-.766***	-.357	-.398***	-.566	-.660	
성인 자녀와의 결속도	규범적 결속도	-2.9	-.028	-.136	-.104	-2.5	-.023	-.101	-.094
	가치관 결속도	.335	.322***	.243	.189*	.436	.395***	.294	.278***
여가활동	사교오락	.125	.095	9.898	.060	-9.3	-.066	.110	.082
	소일	.115	.192**	4.176	.056	3.372	.053	6.594	.108
	건강	.102	.139	4.286	.047	8.880	.114	8.664	.117
Constant	1.164		3.263		1.997		2.278		
R ²	.721		.722		.773		.805		
Adjust R ²	.652		.652		.716		.757		
F값	10.350 ***		10.370 ***		13.629 ***		16.563 ***		

*p< 0.10, **p< 0.05, ***p< 0.01

소일 여가활동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무배우자 노인의 과거생활만족도는 연령이 60대 노인들에 비교해서 70대와 80대의 노인들의 과거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과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생활만족도에 설명력은 72.1%였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현재 생활만족도에는 고독감과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배우자 노인들의 현재 생활만족도에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현재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생활만족도에 설명력은 72.2%였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미래 생활만족도에는 고등학교 이하, 독거, 고독감, 가치관 결속도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무배우자 노인의 미래생활만족도는 고등학교 이하 노인이 고등학교 이상의 무배우자 노인과 비교하여 미래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무배우자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에 비하여 독거하는 노인의 미래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감은 적게 느낄수록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무배우자의 미래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의 미래 생활만족도에 설명력은 71.6%였다.

무배우자의 전체 생활만족도에는 독거, 종교유무,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배우자는 전체 생활만족도에 동거형태는 독거가 아닌 자녀 또는 기타(형제, 자매, 조카)와 동거를 할 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일수록,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전체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생활만족도에 설명력은 80.5%였다.

결국, 무배우자의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동거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고독감과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영향력이 큰 중요한 변수임이 강조되었다. 즉, 사별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는 연구결과와(이가옥 외, 1994)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김춘택, 1997; 손화희, 1998) 일치하는 것으로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는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로서 생활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변인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배우자 남자노인의 경우 무배우자 여자노인에 비해서 고독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자녀와의 결속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를 상실했을 경우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배우자를 잃은 여자노인의 경우 배우자 상실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와 관계의 변화에서 자녀와의 결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은퇴 후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는 남성중심이기 보다는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가족관계 또한 여성노인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내가 없는 남성노인은 자녀와의 결속도를 높일 수 있는 중간자적 입장의 아내가 없기 때문에 자녀와의 결속도가 낮다고 볼 수 있고, 무배우자 여성들보다 고독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배우자 남자노인이 소일 여가활동에만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이 소일활동에만 적극 참여하는 것은 청·장년층을 사회적·직업적 역할에 기여하느라 여가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노인이 가정 속에서 자녀와 또는 이웃 친구 등 대인관계가 지속되는 특성을 나타냈지만, 반면 남자노인은 사회적·직업적 은퇴 후 역할상실의 변화로 생활환경의 중심이 옮겨지면서 심리적 행복감이 여자노인 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무배우자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독감도 같이 증가하였고, 무배우자 노인은 60대에 가까운 노인일수록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고독감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가족과 친구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배우자와 친구들 주변 사람들과의 사별로 인하여 고독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무배우자 노인은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과 소일 여가활동이 60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60대 노인이 소일 여가활동 적극 참여하는 것은 배우자 상실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에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다가, 70대에는 배우자 상실의 적응이 되어 소일활동이 가장 소극적이었다가 다시 80대는 기력의 약화 등으로 소일 여가활동에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라 60대 노인의 미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70대와 80대의 노인들이 비하여 보다 연장된 노년기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셋째, 무배우자 노인의 자녀동거 여부는 고독감이 강력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의존성이 증가하는 노년기에 특히 배우자에 대한

상호의존성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배우자의 사별은 비록 노년기에 경험해야 하는 규범적인 사건일지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의 증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된다. 이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사별은 심각한 절망과 고독감을 수반하게 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된다. 사별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독거노인은 경제적·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무배우자 노인의 소일 여가활동은 독거일 때 참여가 높고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건강)여가활동은 자녀동거 노인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배우자 상실과 독거로 인한 고독감으로 의욕상실로 무료한 여가생활을 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독거노인보다 자녀와의 동거노인이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독거 생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생활에 필요한 가사노동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문제를 가중시켜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무배우자 노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독감을 덜 느끼고, 여가활동이 활발하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정적인 관계로 보다 폭넓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이 감소될 수 있으며, 보다 넓은 사회·경제활동의 범위는 여가활용의 지식과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은 여가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비례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고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

이 낮은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고독감을 덜 느끼고, 자녀와의 결속도가 높으며 여가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게 있어 종교는 심리적 위안을 주고,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사회활동 기회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노인에게 종교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과 소외감을 절감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특히 무배우자의 경우에는 종교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위로감과 안정감이 더 클 것이다. 역할상실로 인하여 활동의 기회가 좁아진 노인에게 종교는 사회생활의 기회제공과 폭넓은 대인관계가 여가활동의 기회를 갖게 해줄 것이며, 노년기 삶의 대한 의미와 자아 통합성을 갖도록 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 요인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무배우자 노인은 월소득이 적을수록 고독감이 증가하였고,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여가활동(자기개발, 건강, 종교 및 사회 등)에 더 많이 참여하며,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심리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경제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특히 자녀와의 결속도를 단단히 유지하는데도 노인들의 경제적인 풍족함이 중요한 변수라는 결과는 노인의 경제력의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고령화사회의 노인의 경제적인 능력, 소득 충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에 더하여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측면도 무시할 없다는 것이다.

일곱째, 무배우자 노인은 자녀와 동거를 할 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일수록,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전체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

인의 과거 생활만족도는 고연령일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과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현재 생활만족도에는 높게 나타났다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일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성인 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미래 생활만족도에는 높게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으로 노인 누구에게나 오는 보편적이면서 가장 큰 노인의 심리적 문제라 생각되어진다. 무배우자 노인에게는 자녀와의 동거와 자녀와의 결속도가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배우자와의 상실로 인하여 자녀에게 기대감이 커짐으로서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년기의 일상생활에 있어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인간의 생리학적인 특성에서 볼 때 배우자 상실의 기회가 매우 높은 시기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인구학적 변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독립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봄으로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에 근거하여 노인의 생활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 독립된 노부부만의 동거가 늘어감에 따라 노년기 배우자생존과 부부관계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배우자 없이 생활하는 것은 노인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배우자 노

인 특히 무배우자 남자노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형식적인 충족의 일치감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 지표인 생활만족에 대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 성인지적 관점(Sex-recognized Perspective)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경제력이 높은 노인들이 경제력이 취약한 노인들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노인들은 퇴직이후에 일정한 경제적인 소득이나 적정한 연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자녀가 제공하는 생활비에 의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노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의 수준은 열악한 수준이다. 우선 공적부조제도에서 제외된 계층 노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적인 여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노인들을 위한 공적부조와 연금개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등대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되어야 하고, 빈곤 노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 심리사회 및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36.6%의 낮지 않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들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반

증하는 것이다. 오래 전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연장된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지식 재충전의 기회는 절실하며,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평균수명연장과 고령화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평생교육체계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대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동안 TV를 보면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들의 여가활동 실태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된다. 우선, 노인들의 TV시청활동에 질적으로 우수한 여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다. TV가 노년기 여가활동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노인 대상의 전문 TV 채널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한 편이다. 이에 노인이 즐길 수 있는 교양적이며 보람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채널 신설이 요망된다. 다른 한 가지는, TV라는 매체를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동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욕구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여가활동을 개발해야 하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다양한 여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노인의 여가여건, 여가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근린 주거시설과 관련된 노인복지 회관 등의 여가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연구대상자와 표집상의 한계로 인해 그 제한점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는 노부모- 성인자녀 세대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 자아증진 및 자기통제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동안 TV를 보면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인식의 부족으로 노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욕구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여가활동을 개발해야 하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다양한 여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문화에 맞는 노인 여가 복지정책을 개발·수행하는 일은 노인들에게 생활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복지사회 구현, 사회통합 시대적 사명이다.

셋째, 본 연구는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도시와 지방 지역을 고려하고 현 세대의 노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그들이 살아온 삶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적 재규정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 접수일 : 2007년 4월 19일
- 심사일 : 2007년 4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5월 25일

【참 고 문 헌】

- 1) 고승덕(1996).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3) 김기태, 박봉길(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

족도와 사회지지방- 지역복지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253-168.

- 4) 김미숙, 박민정(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 20(2) 29-47.
- 5) 김수연(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6) 김애련(2001).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 7) 김종숙(1986).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8) 김철진(2000). 전남 영광지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9) 김춘택(1997). 대구시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김태현, 김수정(1996). 사별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16(1).
- 11) 김태현(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 19(1), 61-81.
- 12) 문화일보. 2004년 10월 13일자.
- 13) 매경 ECONOMY 제 1153호. 2002.
- 14) 박경란(1988).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 장남부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배진희(2002). 노년기 재혼이 지각한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6) 서병숙(1993). 「노인연구」서울 : 교문사.
- 17) 손화희(1999). 재가복지 수혜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 고려대학교 대학원.

- 18) 원영희(1995). 동·별거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5(2), 97-116.
- 19) 유성호(1996).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16(1). 51-68.
- 20) 유성호(2001). 「우리나라와 미국의 노인복지법 비교 연구- 우리나라 노복지법 개정과 관련된 추진과제에 대한 제안」 노인복지정책연구 통권 3호.
- 21) 유영숙(1986). 자녀와의 동·별거에 따른 노인문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22) 윤진(1982). 노인생활만족도 척도제작 연구. 한국심리학회 총회 초록집.
- 23)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4) 이성록(2001). 자원봉사자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 서울여자 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박사학위 논문.
- 25) 이영자(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6) 이우복(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27) 이윤정(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이인정(1999).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35-50.
- 29) 이형하(2000).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30) 장인협, 최성재(199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31) 조황숙, 조병은(2000). 홀로된 여성 노인의 자매 관계특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0(2), 197-213.
- 32) 정혜정, 김태현, 이동숙(2000). 독거 여성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0(2) 49-70.
- 33)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논집. 이화여대 논총(사회과학) 제49호.
- 34)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5) 한임섭(1987).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제활동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6) 홍순혜(1984). 활동 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37) 홍숙자(1992). 한국거주인과 재미교포 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 연구. 경희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8) Aquilino, W. & Supple, K.(1991).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s satisfaction with living arrangements with adult children live at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3-27.
- 39) Bull, C. N(1975).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 A Replication Note. Journal of Gerontology 30(1), 73-76.
- 40) Gordan, M(1978). The American Family : Past, Present and Future N Y Random House, inc.p.350kinsry, A. Pomery. W. and Martin. C. 1948.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 saunders.
- 41) Glenn, N. & McLanahan, C (1981). The Effects of offspring on the psychological Well- bing of older adult. Journal of

- Marrige and the Family 43(2), 409- 421.
- 42) Havighurst, Neurgarten, Tobin(1968).
“Disengagement and patterns of aging”.
IN B. L. Neurgarten(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43) Kalish, R. A(1975). Aging self and
personality. Late Adulteni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Caili Wordsworth
Publishing company.
- 44) Ward, R. A & Sheman, S. R(1984).
Subjective network assess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39, 93-101.